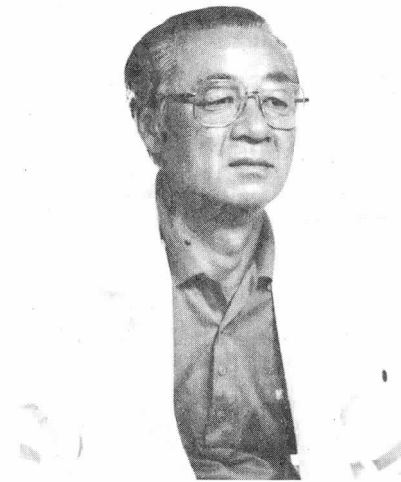


山을 잃어 버렸던 어느 세월

梧山 金 昌 俊



내 어릴때 山에 대한 생각은 지금과 사뭇 달랐다. 山이란 무서운 곳, 옛날 山에는 山賊이 살면서 밤중에 길목을 지키다가 지나는 行人의 財物이나 빼앗아 달아나는 무서운 곳이고, 할머니 벼개 머리에서 옛날 이야기를 조르면, 山에는 무시무시한 山짐승들이 살고, 호랑이나 곰등의 맹수가 사람을 잡아 먹는다는 이야기에 山은 어린 나에게 좋은 곳으로 비춰지질 않았다. 어느 겨울에 늑대가 山을 내려와 누구집 돼지를 물고 갔다고 아침 부터 온 동네가 소동을 벌였다.

—필시 이놈의 늑대도 집돼지를 물고 山으로 갔겠지?)

나는 더욱 山은 갈 곳이 못 된다고 마음 속으로 못 박았다.

太白山 자락이 흘러 내려 내가 자란 마을은 온통 山으로 겹겹이 둘러쳐져 있었다. 조금 멀리 太白山(1,567), 小白山(1,439), 靑玉山(1,276), 日月山(1,218), 文殊山(1,205), 淸涼山(870) 등의 峻峰들이, 가까이는 萃箒山(859), 제비山(768), 兄弟峰(833) 등이 四方으로 가려져 있으며, 동네 부근 봉우리마다 이름이 붙어 感依山(539), 萬石峰(342), 玉川峰(453) 등이 마을을 감싸안고 있다.

멀지 않은 萃箒山의 「목비골」은 壬辰倭亂때 柳宗介 倡義大將이 600여명의 義兵을 이끌고 倭軍과 싸우다가 전원 玉碎한 전쟁터가 남아, 지금도 녹슨 무기의 잔해가 땅 속에서 나온다고 전해지며, 倭敵들의 목을 많이 베었다고 이런 이름이 붙여졌으며, 敵將의 목을 베어 나무에 매단곳이 「달래골」로 전해 내려 오고 있다.

무서운 山의 전설이 머리 속에서 지워 지기도 전에 나는 다시 피흘리는 山을 보아야 했다.

解放이 되면서 빨치산들이 太白山으로 몰려 들었다. 멀지않은 이웃동네 山間마을 대부분의 住民들이 발갱게 물이 들어 이들의 동조세력이 되어 버렸다. 太白山地區戰鬪司令部가 설치되고 이들을 소탕 하느라 軍警들이 寧日없이 설쳤다. 日月山, 文殊山, 萃箒山은 공비들의 「아지트」였고, 밤이면 山에서 내려온 이들이 우익 인사와 警察가족들을 죽이고 家屋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이 무렵 위문대를 만들어 주둔한 軍部隊에 위문품을 전달하는 學校代表로 뽑혀 校長先生님이신 고모부를 따라 司令部를 방문하고 처음으로 軍人들의 食事대접을 받아 보았다.

옆에 數없이 많은 山을 두고도 山은 어린 나의 동심마저 앗아가 버렸다.

山에 오르면 짐승보다 사람이 더 위험하고, 자칫하면 죽어야 하는 더 더욱 두려운 山이 되고 말았다. 나는 山의 풍요속에 살면서, 山을 멀리 해야 하는 절름발이 소년이 되어버린 것이다.

錦繡江山이란 책 속에서나 읽는 것일까? 나의 명든 情緒속에 이 말이 항상 尙의 문으로 남아 있었다.

—이 답답한 먹구름이 언제나 걷히고, 마음 편한 세상이 올라나?”

할머니는 나를 곁에 두고 앞산을 바라다 보시면서 버릇처럼 세월을 원망했다.

—우당탕…쿵…쿵…쿵…

포소리에 놀라 깨어 보니 6.25 전쟁이 터졌다.

나는 이 험어린 山들을 멀리하고 八公山 아래 大邱로 피난을 했다.

치열한 피아의 공방전으로 八公山(1,192), 遊鶴山(839), 架山(901)과 837高地, 741高地, 674高地, 328高地 등에서 흘린 피가 洛東江을 붉게 물들었다.

피난지 大邱에서 八公山을 바라보면 포탄의 섬광이 폭죽처럼 밤 하늘을 수놓고 찬란하게 拋物線을 그리며, 유성의 꼬리 같이 사라지는 이 포탄의 彈着點은 어디일까? 八公山이 屠戮당하면 大邱는 살아 남을까?

“○○山 정기 받고……”

한결같이 앞세우던 學校의 校歌나, 公共단체의 노래 첫 구절 가사의 想念은 딴 세상의 것인양 느껴지고, 이 땅의 山 이름들은 전쟁때 싸움이나 하는 장소로 新聞에나 오르내리는 신세가 되었다.

또한 休戰을 앞두고 지금의 休戰線 부근의 山들이 비행기의 폭격으로 쓰러지고 포탄과 총알로 滿身瘡痍가 되면서 그 물골이 참담하게 일그러졌다.

白岩山(1,142), 兜率山, 加七峰(1,243), 白馬高地(395), 首都高地(663), 노리高地, 靑岑高地, 독수리高地(572), 두메리高地, 金日成高地, 949高地, 351高地, 펀치·볼, 피의稜線, 斷腸의稜線, 저격稜線, 香爐峰(1,293)等 서양이름과 함께 뒤범벅이 되어, 온 世界의 시선을 집중 시켰던 山이 되었다.

전쟁이전에는 太白山, 五台山(1,563), 漢拏山(1,950)이, 전쟁기간에는 休戰線 부근의 위에 열거한 山들 이외에 이름 없는 無名高地들과 龍門山(1,157), 雪嶽山(1,708)들이, 休戰후에는 人民軍 패잔병들이 몰려든 智異山(1,915), 德裕山(1,614), 白雲山(1,278) 普賢山(1,124)들이 피로 얼룩졌다.

포연이 사라지고 총탄이 멈춘 몇년 후, 나는 中東部戰線 山속에서 軍生活를 하면서, 그때의 잔해로 남은 녹슨 철모와 탄피들을 發見하고, 전쟁에 불구가 되었던 山들의 수난을 되씹어 보았다.

내가 山을 잃어 버렸던 세월을 보상이나 하려는듯 山은 그의 넓은 품에 포근히 품어주어 주말이면 배낭을 꾸려 어김없이 山에 안긴다.

아직도 休戰線의 山들은 쇠로 만든 긴 혁대를 몇겹씩이나 두르고 숨통을 누르면서 풀어 줄 날을 기다린다. 北漢山에도 道峰山에도 녹슨 鐵條網이 아직도 군데군데 널려져 있어 少年때 겁먹었던 나의 마음을 다시금 오싹하게 한다.

山은 山 그대로 놔 두어야 한다.

(筆者：山岳人, 達丘誌 主幹, 友信비지네스 代表)

